

# 가람의 장면들

## 귀신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귀신사 대적광전. 백제터에 세워진 신라계 건물로, 가람의 배치법이나 남거진 건물의 구성원리에서 천년전 치열했던 사회적 갈등을 읽을 수 있다.

# 백제터에 세운 신라 화엄가람

전북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유명한 모악산 금산사에서 불과 4k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귀신사 혹은 국신사라 부르는 작은 가람이 있다. 금산사의 유명세에 가려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라시대 '화엄십찰'의 하나로 창건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부석사에서 화엄교학의 터전을 연 이후 그의 제자들은 전국에 퍼져서 수많은 화엄사찰들을 건립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10개의 사찰에는 '화엄십찰'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화엄사 부석사 해인사 갑사 법어사 불국사 등은 지금도 대단한 가람들이며, 현재는 거대한 절터만 남아있는 사신의 보원사도 포함되어 있다. 귀신사가 이러한 정경한 사찰들과 함께 화엄십찰의 하나였다는 것은 몇몇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 백제유민 포용위해 세워

## 신라 건축물 옮겨 놓은듯

## 좁고 높은 수직모습 특징

이후에 국가적 과제는 분열되었던 민족통합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통합적 사상이었고, 모든 불교를 포용하는 화엄파이야말로 통합의 불교로서 신라의 국가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화엄불교는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분열의 갈림길에서 가장 심했던 옛 고구려나 백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포교활동을 벌였고, 그 가운데 지역적 핵심 가람들이 후일 화엄십찰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구려 백제 왜와의 경계에 중심 사찰들을 세움으로써 신라 정부의 보위에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복속되었지만, 여전히 옛 백제민들은 정서적 사상으로 신라를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미륵신앙의 중심지인 모악산 일대에는 미래불 신앙이 신라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치색채로 성장할 우려가 다분했다. 귀신사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세워지게 되었다.

지역적 반발이 심했던 만큼, 귀신사 창건은 신라 정부나 의상계 화엄종에서 직접 간여하게 된다. 재원도 신라에서, 목수나 건축가들도 신라인들이었을 것이다. 사상적 배경 뿐 아니라, 건축과 기술마저도 신라의 문화를 고스란히 백제 땅에 재현한 결과로 되었다.

물론 현재의 건물들은 임진란 이후의 것들이지만, 가람배치법이나 건물의 칸살잡이에는 신라적인 속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을 뒷산과 경사지에 자리잡아 두단의 높은 석축을 쌓아 터를 닦았다. 이렇듯 단에는 대적광전이, 뒷단에는 이른바 백제계 석탑의 모습이 다분한 석탑이 세워져 있다. 아마 뒷단에도 가람의 한 영역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입구에서 대적광전이 있는 주 영역으로 진입하려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경사지를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진입법과 대지조성법은 철저하게 신라적인 양상을 보인다. 금산사에서 보았던 경지성과는 대조적인 수직성이 강한 방법이다.

대적광전(보물 826호)은 크지 않은 규모지만 5X3칸의 칸살을 갖는다. 내부에도 두중의 고주를 세워서 내부공간이 수직적이며 답답한 감을 준다. 기둥 간격은 매우 좁아서 한칸에 문 2짝을 겨우 달 수 있는 크기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일반적인 불전이라면 전면 3칸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를 5칸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따라서 전체 건물은 좁고 높은 수직적 형상을 가진다. 마치 경북의 승림사 대웅전을 축소한 것 같은 모습으로, 건물만 놓고 본다면, 영남없는 신라계 건물이다.

그러나 귀신사를 창건했던 정치적 목적은 실패하고 말았다. 신라에 대한 이 지역의 반감이 격렬했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는 화엄신앙에 대한 미륵신앙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얼마 후에 증창된 진포율사의 금산사에 이 지역 사상의 주도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귀신사의 건축적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조선 후기에 증창된 대적광전에서도 수직적 구성의 신라계 흔적이 반영되었다. 이미 조성된 가람의 틀과 입지와 터에 맞추어야 했던, 어쩔 수 없이 따라야했던 결과일 것이다. 귀신사 가람의 배치법에서, 남겨진 건물의 구성원리에서 천년전의 치열했던 사회적 갈등을 읽을 수 있으니, 건축은 시대의 흔적을 간직하는 증표요, 그릇임에 분명하다.

# "참회와 기도로 통일 이루자"

## 13개 불교단체 '남북화해 1000일 정진' 운동



○10일 열린 '평화통일을 위한 불자 1000일 정진' 연석회의.

갈등과 폭력, 증오와 대립의 20세기 가고 화합과 조화, 참조와 상생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발목에는 분단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으며, 이 분단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새로운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힘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분단의 철책선이 3·8선이 아닌, 동포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도 무감각해진 우리의 무자비(無慈悲)한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남북한 민족간의 영합과 마음가짐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등 7개 종교단체와 2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세대학교 통일운동본부'가 3·1절을 맞아 850km 구간에 150만명이 '평화와 화해의 휴먼라인'이란 인간미를 만드는 것도 남·북한 및 해외동포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시민단체의 이같은 통일운동이 불교계에서는 '1000일 정진'이란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새시대불교포럼 불교보세우기재단 등 좋은뜻을 결합한 평범한 불교

재단 등 타종교단체와의 연대활동도 강화해 '기도와 통일운동의 일치'를 강조할 계획이다.

1000일 정진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각기 특성을 살려 통일관련 신명·교육·학술·통일기금모금·문화사업 등을 펼치는 한편 공동발원문 작성 및 통일기원 경거법회, 한기 굿기, 108배를 절하기, 참선, 알뜰통일을 영원하는 발원문 수행을 겸할 예정이다. 또 각 단체의 프로그램을 '1000일 정진' 연대모임의 이음으로 수렴해 행정자치부 등에 프로젝트제를 제출, 자금을 확보하고 통일하고 및 홈페이지 개설, 조국통일기원탑 제작, 불교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은 '은거려 순장기 운동'에 참여한 사찰을 중심으로 '통일사찰'을 지정, '1000일 정진'에 참여하도록 해 불교통일운동이 지속적·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a.com)

## 인/티/뷰 양심선언자회 이문옥회장

# "정치개혁도 불국토 건설"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10여년 간 노력했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나천·낙선운동 등 시민의 힘으로 깨끗한 정치를 이루려는 노력이 불국토 건설의 시작입니다."

이문옥(61) 양심선언자회 회장은 시민단체의 나천·낙선운동이 깨끗한 정치인을 길러내는 직업이라면서, 이번 정국에서 재도적인 정치라면 지난해 정기국회에 법안(의원 299명중 239명찬성)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공영방송에 그치고 만 부패방지법 제정과 시민단체의 나천·낙선운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랑하기에 아무리 상대에게 불쾌와 한 일이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말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재벌기업의 비업무부동산소유 실태를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 감옥까지 간 정식으로 공직자들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지난 92년 양심선언자회를 결성한 후 내부고발자 보호, 돈세탁 방지, 예산부정 방지, 부정공직자의 재취업 금지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 온 김 회장은 부패방지법 제정이 정치·경제분야 등 모든 개혁의 배대라고 강조한다. 지난 연말 정년퇴직하면서 정기근속 공무원에게 주는 초조근정훈장을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받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맑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불교계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 회장은 사부대중을 승가 공동체의 경건한 일원으로 생각하는 스님들의 발상전환이 있어야만 불교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찰재정의 투명화 등 삼보장재의 공개운영이 선행되어야 불교 개혁과 중흥이 기약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삼·부·농·산·은·습·기·재·세·약·초·만·음·생·산·하·고·있·습·니·다.

91.116/99.92 MBC-TV 고령은 지역  
99.924 KBS-TV 5시 내그림  
98.7.10 SBS-TV 20시 40분 10분

#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유기재배**

신묘장구대다리나 150만 독을 저승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썩이어서 열매가 열리게 하듯 허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리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리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보노이드 물질, 유호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맑게 하여 열성을 잡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노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강의 연동력으로 숙면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숙이 편치 않으신 분  
▶ 뽕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술농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부농산**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SAM BU Farm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 봉축행사 사찰연등 범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 용도**  
사찰연등용·옥외행사용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교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회색시공을 예방
- 설치·수거할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체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 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시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